

한국과 일본의 색채문화와 복색(服色)연구

- 조선시대와 에도시대를 중심으로 -

음정선* · 채금석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전통 색채관은 같은 뿌리에서 시작되어 공유하는 부분이 크지만, 자연적, 지리적 환경, 민족성, 풍습 등의 차이로 인하여 각자의 특색을 가지고 독창적으로 발전해왔다. 이는 나라마다 독특한 색채관을 형성하며 최근에는 전통문화 부분에서 뿐만 아니라 현대 디자인에도 그 여운을 남기며 독창적인 디자인의 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이중에서도 복색의 색채는 시각적으로 보여 지는 효과가 커서 매우 중요한데, 이미 세계 패션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일본 현대 패션은 전통을 바탕으로 형태, 디테일뿐만 아니라 색채에서도 그 이미지를 찾아내어 그들만의 독창성을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전통과 현대를 이어가는 작업은 우리 현대패션의 독창성을 위해서도 이루어져야 하는 작업인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과 일본의 색채문화와 복색을 살펴보고 비교 고찰하여 한국의 독자적인 색채 이미지를 찾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시대적 범위는 한국과 일본의 근세시대인 조선시대와 에도시대로 한정하였다. 연구 대상의 범위는 양국의 회화, 공예품, 건축물의 장식, 복식유물로 한정하였다.

연구 방법은 문헌연구와 실증연구가 병행되었으며, 문헌연구로는 양국의 미술사, 민속사, 복식사 등 국내외 문헌들과 선행 연구 논문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실증연구는 양국의 문화, 예술관련 사진자료, 복식관련 그림 자료와 유물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색채 비교 연구의 객관성을 위하여 전통색 표를 첨가하였다. 일본의 전통 색표는 『色・彩飾●日本史 색・채식의 일본사』를 참조하였으나, 한국 전통색 표는 시대별 시각 자료를 색도계로 측정하여 전통 색표를 제작하였다.

시각자료의 색채 측정은 인쇄물의 간접 측정이라는 한계점이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여러 출판물에 게재된 같은 사진들을 모아 4회 이상의 측정을 시도하여 산출되는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색채의 측정은 Minolta CR-11의 색도계를 사용하였으며, 측정값은 Munsell기호로 표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첫째, 조선시대와 에도시대의 색채관에 내재된 정신사상과 미의식을 살펴보았다. 먼저 조선시대 색채문화에 내재된 주요정신사상은 유교와 실학을 들 수 있으며, 그밖에 음양오행, 자연주의, 불교 등을 들 수 있다. 이로 인하여, 화려미, 자연미, 장식미, 절제미, 소박미가 나타났다. 다음으로 에도시대의 색채관에 내재된 주요정신사상으로는 신불교와 유교를 들 수 있으며, 그밖에 몰랄론적 신앙, 음양오행, 불교, 선불교, 도교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에도 시대의 부유한 조닌 문화를 대표하는 이키 미의식이 나타났다.

둘째, 위의 미의식을 바탕으로 형성된 조선시대와 에도시대의 색채관을 살펴보면 조선시대에는 삼국

* Corresponding Author: eumjungsun@hotmail.com

시대부터 전해져온 자연주의 색채관과 음양오행의 색채관외에 절제미와 소박미로 대표되는 유교와 실학의 영향으로 소색과 담색을 중심으로 한 절제와 소박의 색채관이 더해진다. 에도시대에는 관능적이고 도시적인 이키를 바탕으로 유녀나 배우를 중심으로 한 유행색의 색채관이 나타난다.

셋째, 조선시대와 에도시대의 문화예술에 나타난 색채문화를 살피고, 양국 복식에 나타난 색채를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선시대와 에도시대는 양국의 전통 색채관이 확립되는 시기이다. 먼저 조선시대에는 소색, 담색과 음양오행에 의한 원색적 색채가 문화예술 전반에 주도적으로 나타난다. 복색관제에서는 신분이 높을수록 고채도의 색채를 사용하는 반면, 선비의 평상복과 대부분의 서민들의 복색에는 소색과 자연색으로 대표되는 고명도의 담색 사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한 일부 부녀자와 어린이의 복색으로 오방색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정색과 간색이 다채롭게 사용되었다. 에도시대에는 이키 미의식을 바탕으로 한 조닌 중심의 서민문화의 발달로 차색계, 쥐색계와 같은 유행색이 등장하였다. 이 유행색들은 신분적 한계로 인한 사치 금제로 인하여 수수하고 차분한 중명도, 저채도의 색채로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일본의 색채관은 여러 가지 색이 섞인 복색과 중간색의 색채문화로 대표되는데 비해, 한국의 독자적인 색채관은 전시대를 걸쳐 자연미와 화려미에 의한 색채관이 계속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이에 표현된 색채들은 대체적으로 소색, 담색, 오방색의 단색으로 짙고 열음에 따라 다른 색채가 표현되는 순도 높은 색채들임을 알 수 있었다.